

## 最近 日本의 林業經濟 動向과 林業의 課題\*3

朴 明 圭\*2

### Recent Trends of Forestry Economics and its Problems in Japan\*1

Myeong Kyu Park\*2

Forestry economics in Japan faces the problems of severe decreasing of timber demand and increased importing of foreign timber. Moreover, lack of labour and heavy wages in forestry cause the failure of normal forest management in Japan. In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for enhancing the forest production to reorganize the forest resources, to optimize the amount of importing foreign timber, and to greatly expand the new forest road, reforestation, government subsidy and political financial support for the foresters. At present,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 as well as public function of forest are being discussed for the forest production on the government basis.

#### I. 序 言

石油과 木材는 日本의 主要 輸入品目別 輸入額 중에서 1 - 2 位를 占有하고 있다. 1977年 石油의 輸入額은 216億 18百萬弗, 木材의 輸入額은 38億 3百萬弗(木材鋸 除外)에 達하고 있어 이들 石油과 木材輸入이 日本의 林業에 미친 영향은 至大하다.

즉 石油輸入의 增大는 1960年 以後 加工貿易 中心의 日本經濟에 高度成長을 불러 일으킨 根源이 되었지만 石油 需要增大에 따른 燃料革命의 波及은 林業分野에 있어서 薪炭生産의 破滅을 초래했으며 闊葉樹의 利用을 木材鋸과 靑고栽培用 楮木으로 轉換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恩貨의 換率이 높아짐에 따라 海外로부터 外材의 輸入이 膨창되고 있는 反面에 石油波動 以後 經濟의 長期不況은 國內木材 需要를 抑制시키고 있다.

敗戰 以後 30余年 동안 日本林業은 森林資源 造成增強策에 힘입어 再造林과 擴大造林이라는 形態로 資源造成을 서둘러 왔다. 그래서 1950~1975年에 이르는 동안 民有林에서는 約 700萬ha의 造林이 實施되었으며 그 중 70%에 該當하는 500萬ha는 擴大造林 面積이다. 昭和의 萬里長城이라고 呼稱할 만큼 廣大한 面積이 人工林으로 轉換되었으며 이는 從來의 傳統의인 林業主產地 以外에 全國的인 規模의 林業地 形成을 可能케 했다.

그러나 日本經濟는 高度成長 過程에서 農林業과 他産業 分野와의 所得隔差를 進진시켰으며 그結果 農山村의 靑壯年 勞動力은 大量 流出되는 現象이 表面化했다. 더욱이 生活環境 整備의 낙후성에 緣由되어 農山村과 都市와의 地域隔差, 그리고 人口의 過疎化현상이 山村이란 地域構造의 유지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農山村에서는 勞動力의 不足, 勞賃의 上昇으로 林

\*1 Received for Publication on May 30, 1980.

\*2 서울대학교 農科大學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業生産 活動이 停滯化 되어가는 傾向이 일어나고 있다.

最近 日本의 林業과 山村은 것처럼 어려운 環境에 處해 있으나 林業의 生産活動을 正常化 시키고 山村을 振興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林業과 山村 問題를 다루고 있는가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현실도 農山村 人口의 격심한 都市流出 現象이 顯在化 해 가고 있으며 그간 植栽 造成된 人工林의 間伐과 間伐材의 用途開發, 勞賃의 上昇에 따른 育林費의 過重한 負擔, 外材主導型 消費構造로 인한 內材의 適正價格 維持等 諸般與件이 林業 經營活動을 阻害할 要因으로 登場하고 林業 問題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現實에서 우리와 地政學의 으로 인접해 있고 山林의 所有構造面에 있어서도 우리와 類似한 가운데 林業經營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林業事情을 考察해 보는 課題는 意義있는 일이라 思料된다.

## II. 木材의 需要, 供給과 그 變動

2次大戰 終了后 오늘날까지의 日本의 木材需給 變動을 概括하면 다음 三段階로 區分해 볼 수가 있다.

### (1) 戰后 復興期의 木材需給(1945~1960)

戰災復興 資材로서의 建材과 薪炭材 需要가 急增되었고 그 大部分을 內材로 充當했던 時期이다. 1955年度의 木材 總需要量은 4500萬 $m^3$ 으로서 敗戰 후인 1946年의 木材需要量 1980萬 $m^3$ 에 比하면 2.3 倍의 需要增加를 보이고 있다. 外材는 合板原木等을 中心으로 內材의 補完機能에 充當되고 있을 뿐이어서 同期間內 木材 總需要量의 5.5%에 지나지 않았다(表 1 參照).

### (2) 高度經濟 成長期의 木材需給(1961~1972)

高度經濟成長 政策의 本格的인 實施에 수반되어 住宅資材를 中心으로 하는 木材需要는 增大되어갔다. 1960年 末까지 外材輸入에 관련되는 制度의 規制는 거의 除去되었으며 木材價格의 上昇으로 因해서 輸入木材는 採算이 맞았다. 그러므로 外材輸入은 1961년부터 急增하는 傾向을 보였다. 다시말하면 國內의 木材需要 增大는 外材에 依해서 充當되었던 시기이다.

### (3) 低成長(減速) 經濟期의 木材需給(1973~현재)

石油波動 以後 現今까지의 시기이다. 木材는 그동안 不足物質로 부각 되었으며 木材價格은 일괄해서 上昇 傾向을 보여 왔다. 따라서 林木은 伐採만 하면 好景氣로 賣却되었고 伐採하지 않아도 森林의 價値는 上昇되어 간다는 經營의 安易性이 林業界와 國產材 關連業界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石油波動을 계기로 木材需給은 不足基調로부터 過剩狀態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기에 이르렀다.

木材의 需給에 影響하는 要因은 Pulp·製紙, 合板, 建材, 木加工品, 抗木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木材需要의 大宗을 이루는 住宅建設의 動向을 例로 들면(그림 1 參照) 新築住宅 着工 戶數는 戰后 일관해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73年의 1905천戶를 피크로 1975년에는 1356천戶까지 하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7년에는 總合的인 景氣對策의 一環策으로 住宅建設이 促進된 結果 1508천戶까지 회복되고 있지만 住宅需要의 피크를 이루었던 1973年 보다는 그 隔差가 約 20%의 갭을 보인다.

또한 住宅의 木造率 低下와 建材部門의 代替材 進出 모습을 보면 新設住宅의 木造率이 1965年의 77%에서 1973년에는 59%까지 하락되고 있으며 제 2次 맨손분이라 불리우는 1977년에 있어서는 그간 67%까지 상승되었던 木造率이 63%로 떨어져 있다.

그와 반면에 代替材의 生産量은 1965年을 기준으로 1976年의 指數가 輕量型 鉄鋼 166%, 알루미늄 샷시 2,195%의 增勢를 나타내고 있다.

그처럼 低成長, 엔貨 換率高의 상황하에서 木材産業의 市場擴大 競爭은 격화되어가고 있으며 木材需要 分野는 앞으로 擴大되기 어려울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林野廳 企劃課는 1978年 建築部問 木材 需要量을 비공식 試算한 結果 그 내용은 1985年의 新設住宅 着工戶數를 160萬戶로 豫想했을 경우 約 2,000萬 $m^3$ , 170萬戶로 豫想했을 경우 2,100萬 $m^3$ 으로 推定하였다.

1976年의 新設住宅 着工戶數 1,524천戶에 對한 木材需要量이 2,000~2,200萬 $m^3$ 이었으므로 10年後의 木材需要는 住宅着工이 상당히 增加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試算이다. 따라서 林業, 木材 關連業者는 販賣努力, 減量經營, 企業의 組織化等

表 1. 木材의 需要供給量과 外材依存率

(單位 千m³)

年度別	木 材 需 要 量			木 材 供 給 量		外材依存率 B/A (%)
	國 內 消 費 量	輸 出 量	計 (A)	國 內 生 產 量	輸 入 (B)	
1946	19,755	0	19,755	19,755	0	0
1950	36,432	87	36,519	36,431	88	0.2
1955	44,105	1,173	45,278	42,794	2,484	5.5
1960	54,778	1,781	56,559	49,018	7,551	13.0
1965	68,943	1,588	70,531	50,376	20,155	28.6
1970	101,577	1,102	102,679	46,241	56,438	55.0
1971	100,150	1,255	101,405	45,966	55,439	54.0
1972	105,471	1,033	106,504	43,941	62,563	58.7
1973	116,894	687	117,581	42,209	75,372	64.1
1974	117,725	1,315	119,040	45,474	73,566	61.8
1975	95,344	1,025	96,369	34,577	61,792	64.1
1976	101,614	995	102,609	35,760	66,849	65.2
1977			101,800	34,200	67,600	66.0

資料, 野村勇 「新外材讀本」注: 1976年 以後 林業統計要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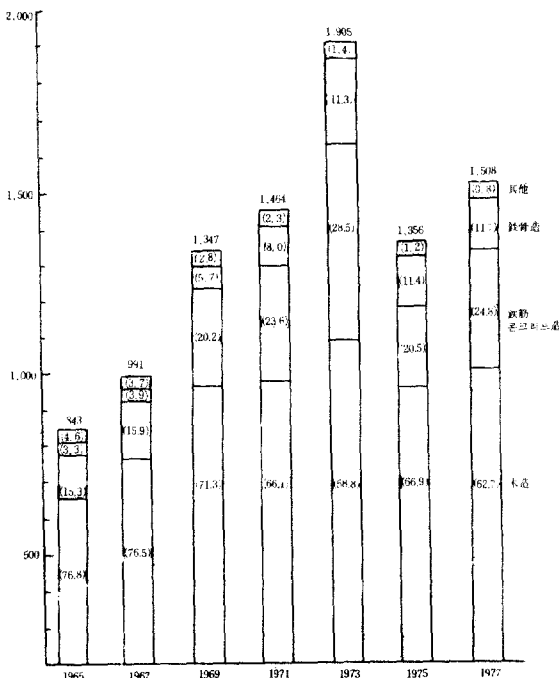


그림 1. 新築住宅 戶數의 推移 (建築構造別)  
 資料: 日本 建設計劃局 建設統計年報  
 注: ( ) 內는 構造別 比率

經營의 再整備를 서둘러야 할 時點에 이르고 있다.

住宅建設의 低調와 木造率 減少현상은 木材需要의 伸張을 鈍化시킬 要因이 되고 있는 反面에 木材는 不足物質로 부터 過剩物質로 變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狀況下에서도 外材供給만은 크게 增大되고 있는데 그것은 內材供給의 沮害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外材供給量의 增大는 外貨의 높은 換率에 의한 外材의 輸入 자극에 緣由되고 있음을指摘하고 있다.

木材는 1957年 美材의 輸入自由化를 제기로 1960年에는 原木輸入 自由化가 完了되는 등 一連의 措置에 의해서 60年代 初에 이미 開放經濟體制로 移行되어 갔었다. 현재 殘存하고 있는 關稅로서 原木으로는 오동나무(기본 5%, 特혜 0%) 製材로는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낙엽송의 製品(기본 10%, 特혜 0%) 그리고 羅王類(기본 10%, 特혜 5%) 등 약간의 品目이 있을 뿐이다. 當時의 實情은 木材를 恒常的인 不足物資로 看做했으며 살나무, 편백 등 日本 唯一의 經濟樹種과 美材와는 競合의 餘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輸入自由化가 完了된 다음해인 1961년부터 木材輸入은 急増해서 1969년에는 外材의 占有率이 과반수에 달했으며 1977년에는 3分之2에 해당하는 66%를 外材에 依存하고 있다(表1 參照).

### Ⅲ. 林業生産活動의 沈滯

正常的인 林業의 生産活動이라면 伐採가 進行되고 그 跡地에 造林이 이루어지며 保育과 間伐이 實施되는 즉 伐採-造林-保育·間伐이라고 하는 一連의 生産活動이 回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그같은 活動에 依해 森林의 再生産 機能이 維持되며, 資源構成의 秩序가 保續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價格의 低廉, 育林費用의 增大는 林業經營 意慾을 低下시키고 있으며 伐採量의 減少, 造林의 不振, 保育間伐의 遲延 等 林業生産活動은 停滯, 縮少를 免치 못하고 있는것이 日本의 林業實情이다(그림2 參照).

伐採面積은 1976年 民有林, 國有林을 總括해서 36萬ha에 지나지 않으며 이 數字는 1951年의 伐採面積 對比 45%에 불과하다. 造林面積은 21萬ha로서 造林의 피크를 이루었던 1954年과 對比하면 49%라는 實績에 지나지 않는다. 間伐에 있어서도 1971年~1975年間의 要間伐面積 206萬ha 중에서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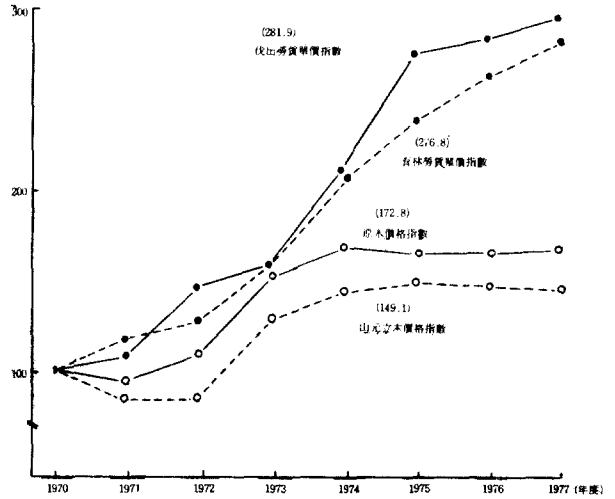


그림 2. 立木 및 原木價格(삼나무)과 育林費, 勞賃의 變化

期間內 間伐實施 面積은 32萬ha에 지나지 않으며 間伐實施率은 16%에 불과한 實情이다.

이같은 狀況이 그대로 繼續되면 林業生産 活動에는

- (1) 林業生産業의 經營意慾이 침체되고 內材 關連産業의 經營基盤이 弱화되어 市場의 縮少를 免

表 2. 造林·伐採面積의 變動

(單位, ha)

年度別	人工造林面積			伐採面積		
	總數	國有林	民有林	總數	國有林	民有林
1955-1959 (平均)	370,520	68,593	301,927	711,504	156,742	554,762
1960	404,470	88,023	316,447	656,229	141,048	515,181
1965	372,234	88,401	283,833	571,878	168,931	402,947
1970	354,365	85,806	268,559	485,072	145,880	339,192
1971	336,697	81,186	255,511	479,481	149,084	330,397
1972	290,095	64,245	225,850	447,639	144,995	302,644
1973	268,722	68,576	200,146	405,644	134,348	271,296
1974	243,085	63,501	179,584	379,770	125,948	253,822
1975	228,947	58,742	170,205	359,920	124,957	234,963
1976	211,371	48,641	162,730	359,559	121,843	237,716
1977	202,000	52,000	150,000			

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1900年代 以後에는 戰后 植栽林이 本格的인 伐期를 맞게 됨으로 이 時期에 如何히 대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2) 森林이 가지는 諸般 公益的 機能의 低下가 우려된다. 林業生産 活動의 停滯는 森林의 管理를 粗放化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며 健全한 森林이 保有하는 水源涵養, 國土保全, 大氣淨化, 自然 休養 등 公益的 機能을 低下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3) 山村 地域社會에 波及될 影響을 들 수 있다. 國土의 約 半分을 占하는 山村地域에 있어서 重要한 産業인 林業生産活動의 維持는 地域住民의 生業 安定과 함께 地域社會의 維持發展에 밀접한 關連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活動의 停滯는 山村 地域社會의 쇠퇴를 더해가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美國의 에너지 政策을 모방해서 國內의 森林資源을 保存하고 그대신 當面한 木材의 需給은 外材輸入의 增大를 통해서 充當토록 함과 동시에 資源은 장래를 위해 備蓄해 두어야 한다는 資源備蓄論도 學說되고 있다. 그러나 石油와의 決定的인 相違는 森林資源이란 生物體라고 하는 點에 있다. 放置해 둔다고 하는 事實은 良質의 蓄積을 期待할 수가 없다. 生態系의 추세에 따라서 적정한 管理를 持續하는 것만이 資源의 整備와 再生産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 IV. 林業經濟 施策의 當面 課題

林業經營活動을 助長, 進展시키는데는 林業에 關한 綜合的 對策의 講究가 要望되는 것으로 그들은 林業의 主要課題를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檢討하고 있다.

(1) 安全成長型 經濟에 대응하는 需給의 長期 展望과 森林資源 整備의 確立

林業基本法에 기인한 現行의 林產物需給 長期豫測과 森林資源 基本計劃은 1971年을 기준으로 해서 1973年에 閣議決定을 본 것으로 이들은 經濟成長期의 最終段階에 策定된 것이기 때문에 石油波動 以後 經濟基調의 變化와 木材需給 構造의 變動 등이 수반되어 豫測과 實績과의 사이에 상당한 靛을 보이고 있다(그림 3 參照).

그렇기때문에 安定成長型 經濟에 대응하는 需要 豫測의 基本的 是正을 필요로 하고 있다. 現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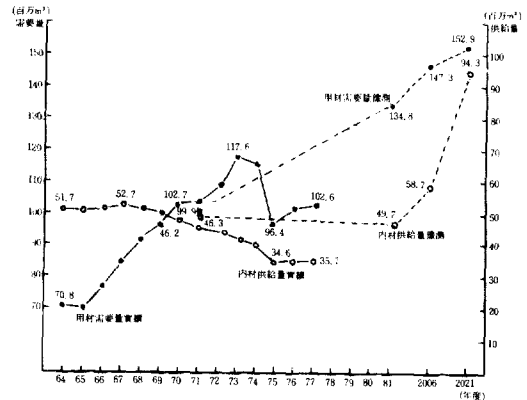


그림 3. 主要 林產物 需給에 關한 長期豫測(用材 總需要量과 內材 供給量의 豫測 및 實績)

豫測方法은 10年 后, 20年 后의 豫測值을 推定하고 그것을 森林資源 基本計劃 期間과 관련시켜 50 年 后의 需要量에 關한 豫測을 試圖하고 있으며 供給量에 對해서는 森林資源 整備에 수반한 國產材 供給 可能量을 기초로 해서 需要量과 內材 供給 可能量과의 差異를 外材로 補填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50年이란 超長期의 需給豫測에 對한 정확성 問題 以外에 內外材의 競爭條件과 需給 關係를 度外視한 現豫測 方法의 再檢討가 要望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森林資源 基本計劃에 있어서는 人工林面積과 林道網密度의 目標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木材 需要의 多樣化, 國產材 生産의 品質指向, 森林의 公益的 機能을 重視하는 요청 등에 對應해서 그 內容을 시정하고 특히 低成長經濟, 內外材 混合流通에 알맞는 森林施策(資源의 量的整備重視型→資源의 價值, 品質重視型)을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林產物需給 豫測과 森林資源 基本計劃에 對해서는 그같은 見地에서 1978年 부터 改正作業을 착수해 가고 있다.

(2) 木材需給의 安定

林業이 當面한 가장 긴급한 課題는 木材需給의 安定에 있다. 木材 總需要量의 66%를 外材로 充當하고 있는 日本의 林業 現實에서 即效性이 있는 木材需給對策은 關稅와 非關稅의 장벽에 있으므로 그들에 關한 검토가 行하여 지고 있다. 그러나 日本이 처한 國際經濟 環境과 木材의 商品特性(樹種, 材質의 多樣化) 그리고 國產材의 供給力 등 諸現

象이 關稅장벽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當面 措置로서 木材輸入의 監視와 行政指導를 통해 外材輸入의 適正化를 試圖하고 있는데 具體的인 例를 들면 官民代表로 構成된 木材需給 對策 中央審議會에서 四半期마다 向後 1年間의 需給 豫測量을 策定 公表하고 있다. 또한 林野廳은 每月 木材輸入業者로 부터 材種別로 向後 三個月間의 輸入豫定 數量에 對한 제출을 받고 輸入實積을 追跡함과 동시에 必要에 따라서는 個別的으로 木材輸入의 適正 円滑化를 期하는 見地에서 指導를 하는 方策이 취해지고 있다.

短期需給豫測의 公表는 1978年 10月부터 實施되고 있으며 또한 이 措置를 補完하기 위해서 木材需給 價格에 關한 情報의 適確한 把握과 傳達시스템의 整備를 檢討하고 있다.

### (3) 林業生産 活動의 活性化

日本에 있어서 林業振興施策을 農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貿易上의 保護措置는 極히 一部の 關稅를 除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價格政策, 所得政策이 취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補助金의 大部分은 公共事業費로서 생산 장려적인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非公共分野의 補助金은 比較的 金額도 적고 種類도 限定되어 있다. 또한 金融稅制 措置가 지니는 政策的 役割이 크다는 事實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들 중 補助金과 金融稅制 措置에 關한 問題는 林業이 지니는 生産構造의 特性에 기인한다.

日本의 林業은 經營規模와 經營形態가 多樣하며 生産力의 中核이 되고 있는 經營體는 250萬 林家中에서 1%정도의 中堅 以上 階層과 會社有林, 公有林, 國有林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는 單一構造의 農業生産과 決定的으로 相異한 生産構造인 것이다.

그러므로 縮少의 停滯過程에 처해있는 林業生産 活動의 活性化를 위해서 林業豫算의 根幹이 되고 있는 公共事業(林道事業, 造林事業)을 積極적으로 伸張시킬 것을 要請하고 있으며 生産 主体와 特用 林產物의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補助事業의 積極化와 金融措置의 과감한 확충을 要請하고 있다.

現在 林業에 關한 制度金融으로서는 農林漁業金融公庫 資金(造林資金 等を 主体로 하는 長期設備資金)과 林業改善資金(新技術 導入, 新規 프로젝트 장려를 위한 無利子資金) 등이 있으나 農業近

代化資金 漁業近代化資金에 相當하는 形態의 系統 原資에 依한 利子 補給制度는 存在치 않는다.

### (4) 國有林 事業의 經營改善

戰後 混亂期를 지나 復興期에 접어들면서 부터 國有林에 있어서도 伐採跡地에 造林을 積極적으로 推進시켰으며 失業狀態에 놓여있는 山村勞動의 就業 機會를 提供했다. 그 후 高度經濟成長의 지속과 함께 急增하는 木材需要에 對應해서 擴大 造林이 進行되었으며 國有林 經營은 擴大基調下에 순조로운 進展을 보아왔다. 國有林 經營의 進展은 都市에 比해 開發이 지연된 山村의 經濟社會를 여러 가지 側面에서 發展토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經濟의 發展과 함께 山村人口의 過疎化가 심각해졌으며 都市人口의 過密化와 産業公害 등이 高度成長의 副產物로 國民生活에 意識化되어 가는 過程에서 國有林의 經營問題는 여러가지 形態로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그와 반면에 國有林事業은 森林이 가지는 公益的 機能을 重視하는 施策의 代替와 伐採屢 其他 事業規模의 減縮을 단행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결과는 國有林 經營을 점차 困境에 處하게 하고 있으며 地域住民의 國有林에 對한 關心과 利害는 低調해 가고 있는 實情이다.

그래서 1973年 7月에 公布 實行된 國有林 事業改善 特別措置法은 그 目的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最近 國有林 事業이 經營構造 惡化로 因해서 財政狀態가 極히 困境에 直面한 처지이다. 그러므로 이를 健全하게 回復시켜 國有林의 使命을 다해 나가도록 할 意圖에서 國有林 經營構造를 改善할 必要가 있으며 自主的 改善努力의 指針으로 改善計劃의 策定을 試圖하고 그같은 自主的 努力을 助長하는 要件으로 造林 林道 等 生産基盤의 整備를 위해 資金에 關한 財政援助를 策定하는데 두고 있다.

이 法律에 따라 1978年 9月에 農林水產 當局은 改善計劃을 策定하고 向後 10年間에 걸친 國有林 事業의 多角的인 改善對策을 試圖하고 있다. 國有林 事業의 役割은 國民共同的 財産인 國有林의 森林資源을 건전한 모습으로 維持 培養해서

① 林產物의 計劃的 持續的인 供給

② 國土의 保全, 水資源의 涵養, 自然環境의 保存·形成 그리고 保健休養場의 提供 등 森林이 保有하는 公益的 機能의 發揮

③ 國有林野事業이 諸般 活動을 通해 農山村地域의 振興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特別會計制度에 依해 運營되고 있는 國有林事業의 財政은 危機에 처해 있으므로 그들의 使命 達成을 爲한 手段으로서 經營의 健全性을 回復하지 않으면 本來의 使命을 達成해 가지 어려운 實情에 놓여 있다.

1960年代 前後의 高度經濟成長은 木材需要의 急激한 増大를 招來했고 그에 對應해서 國有林은 生産擴大期에 形成된 組織과 要員은 그 후 事業規模 減縮過程에서 相對的으로 過大한 組織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事業規模의 減縮에 알맞는 組織으로 變形시켜 나가야 하는 問題 그리고 事務能率과 現場作業의 效率이 民間企業에 比해서 低位에 있기 때문에 그 能率을 提高하는 課題가 國有林 經營改善의 基本目標로 登場되고 있다. 따라서 1978년에는 營林局의 再編整備, 營林署의 統廢合을 단행했다. 앞으로도 事業所의 統廢合 등 組織機構의 簡素化, 高令職員의 勸獎退職促進, 新規採用의 抑制, 職員配置의 適正化를 試圖하고 現場作業의 生産性 向上을 推進하는 일들이 考慮되고 있는 것이다.

## V. 結 言

日本の 林業은 木材需要의 침체와 外材輸入의 팽창이라는 二重苦속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山村 勞動力의 不足化와 勞賃의 上昇으로 育成段階에 접어든 森林의 保育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어 間伐問題는 重要한 政策課題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이 불러 일으킨 波及은 林業家의 經營意慾을 침체케 하고 生産活動의 둔화를 免치 못하고 있으며 森林管理의 粗放化, 森林에 부과된 諸公益機能의 低下를 招來할 危機에 處하고 있다.

그러므로 林業經營活動을 助長 進展시키기 爲한

林業의 綜合的 經濟施策이 講究되고 있다. 즉, 木材需給豫測과 森林資源 基本計劃의 是正을 通해 森林資源의 整備를 서두르고 있으며, 木材需給의 安定을 爲한 對策으로 關稅의 檢討, 木材輸入의 監視와 行政指導를 通한 外材輸入의 適正化가 試圖되고 있다.

또한 林業生産의 活性化 方案으로 林業豫算의 根幹이 되고 있는 公共事業(林道, 造林事業)의 大幅的인 伸張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林業生産과 山林振興을 爲해서 補助事業의 積極化와 아울러 金融措置의 擴充을 要求하고 있다.

그리고 國有林 事業의 經營改善을 爲한 特別措置로서 國有林 經營構造의 改善作業을 推進하고 있으며 森林의 公益的 機能의 高度發揮를 爲한 諸般施策의 檢討를 서두르고 있다.

## 參 考 文 獻

- 鷺野 宏, 1979. 最近의 林業動向에 對한 森林資源의 整備를 爲하는 課題, 農林金融誌 No. 32-6
- 鎌田藤一, 1979. 世界의 木材資源과 日本林業, 農林金融誌 No. 32-11.
- 小倉武夫, 1979. 國產材利用とその問題點, 農林金融誌 No. 32-11.
- 石川利夫, 1978. 外材輸入의 増大와 日本林業, 農林金融誌 No. 31-11.
- 鷺野宏, 1978. 最近의 林業事情과 林政의 展開, 農林金融誌 No. 31-11.
- 林野弘濟會, 1978. 日本林業年鑑.
- 片國秀夫, 1978. 林業經濟論, 林業調査會.
- 村島田直, 1975. 木材의 輸入과 日本經濟, 林業經濟研究所.
- 馬相圭, 1978. 日本林業의 視察報告, 韓獨山林調査機構.
- 朴明圭, 1971. 戰后 日本의 經濟와 材政의 展開.